

01 교회소식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

우리 교회 본당, 대형 LED 디스플레이 교체 소식 및 주님의 공중 강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단 그림에 담긴 영적인 의미.

02 생명의 말씀

권능 (1)

권능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이다.

03 기획특집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2017 기관장 교육' 말씀을 통해 권능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에 대해 배운다.

04 간증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

권능의 기도로 다은중흥군 고위험군 아기가 정상이 되고,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등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 간증.

만민뉴스

제849호 2018년 7월 2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교회 개척 36주년 기념, 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교체



교회 개척 36주년을 맞아 교회 본당 예배 환경이 대형 LED 디스플레이 교체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지난 7월 20일 금요일예배 때 첫선을 보여 성도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존의 단 그림 또한 생동감을 살려 다시 오실 주

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사진 1~4).

이번에 교체된 LED 디스플레이 크기는 가로 13m, 세로 5.5m이며 4k 해상도로 운영된다. 또한 예배 때 영상 분할의 효과로 설교자는 물론 관련 성구나 이미지 등 설

교 보조 자료를 동시에 보여줌으로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천국과 자연 이미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모습 등을 보여주는 매체로도 활용된다.

7월 22일 주일 저녁예배 후, 교회 개척

36주년 기념 공연(사진 5~7)을 본 성도들은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밝고 선명한 색상의 화면과 다양한 이미지 등은 해로운 공연 배경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을 느끼며 예배 시간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1996년 8월, 제5성전 입당예배에 맞춰 제작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공중 강림과 창세 이래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 휴거 그림은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신부단장에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단 그림은 이후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의 보완 작업을 거쳐 영의 세계를 더욱 밝히 보여주고 있다.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했다. 또한 성경은 공중 강림하실 주님의 모습에 대해 “불지여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6~17)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살전 4:16)라고 말씀한다.

주님과 함께한 천군 천사들

구름을 타고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 앞쪽으로는 나팔을 부는 천사의 무리, 좌우편에는 전사들의 그룹이 정렬해 있으며 주님의 우편 전사들 앞에는 미가엘 천사가 진두지휘를 하듯 서 있다. 전사들 뒤

로는 수많은 천사장이 정렬하여 주님을 호위하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의 우편에는 남성형 천사장들이, 좌편에는 여성형 천사장들이 호위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시는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좌우와 그 뒤로는 창세 이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있다. 첫째 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정도의 믿음을 지닌 선진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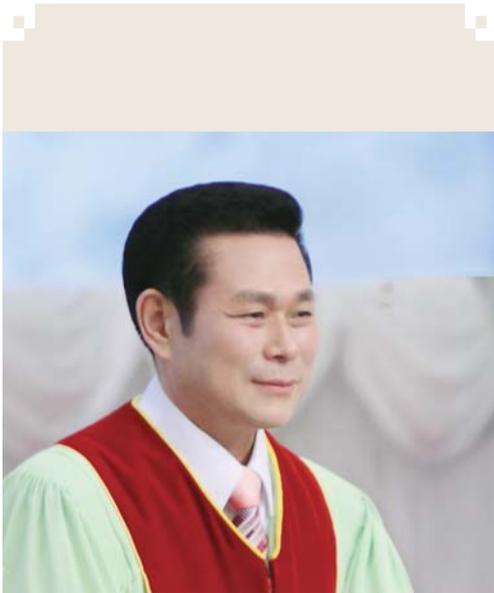
서 주님 우편에 엘리야, 아브라함, 좌편에 예녹, 모세 선지자의 모습이 보인다. 둘째 줄부터는 우편에 남성도들, 좌편에 여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한 모습이다. 그리하여 둘째 줄 우편에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좌편에는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에스더, 룻의 모습을 그렸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출연히 변화된 몸으로 휴거되는 전 세계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 한 대로 세계 곳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 신부단장에 힘쓴 교역자와 성도들이 출연히 변화된 몸으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휴거되는 모습이다. 중앙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렸다.

권능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권능은 아버지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과 권세 자체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체험한 후에야 지극히 겸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지요. 권능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입니다.

1. 가장 기초적인 '권능의 의미'

1) 천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기사(奇事)'

여기서 천기(天氣)란,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와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행 2:19).

먼저, '천체와 관련된 기사'로는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쟁 당시 태양이 거의 종일 중천에 머물렀으며, 히스기야왕 때는 일영표 위의 해 그림자가 십도로 물러간 일이 있었습니다(수 10:13 ; 왕하 20:11). 이는 하나님께서 지구뿐 아니라 첫째 하늘 전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시고 그 안에서 시간 조절을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별이 이동하면서 박사들을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일도 있습니다. 별은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운행하는데, 그때는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 움직였으므로 이를 '기사'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8월 무안에서 열린 수련회 때 세 개의 별이 동시에 이동하는가 하면, 7월 초 주의 종 교육 기간에는 두 개의 별이 이동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등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별의 이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의 별들이 이동한다면 천체 질서가 깨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둘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움직이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상을 움직이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상'이란, '비, 눈, 바람, 구름, 기온, 기압 등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지요. 2013년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집회 시작한 지 10여 분이 흘렀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도하자 수련회장 하늘을 덮고 있던 10여 킬로미터 두께의 먹장구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지요.

이내 교육장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성탄점등식 때는 일기예보에 눈 소식이 없었고 당시 기온은 영상 2도였는데, 점등식 시작 15분 전부터 우리 교회와 주변에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회오리치듯이 어디선가에서 쏟아져 내렸지요.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열어 열린 문을 통해 내려주시는 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이나 비를 마음대로, 뜻대로 부리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신다(시 104:4)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비를 이루시기 위해 바람도 자유재로 움직이십니다. 애굽에 열 재앙 중 때뚜기 재앙 때도 애굽 온 지경에 이끌어 들이실 때는 동풍을 일으키셨고, 몰아내실 때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셨지요(출 10:13, 19).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출 14:21).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도 바람으로 역사하셨지요(시 78:26~27).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바람을 다스리셨습니다(막 4:39).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빌 2:6).

2017년 5월 15일 교회 행사가 있던 날에는 그간 심했던 미세먼지 없이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 황사가 밀려왔던 전 주와 비교해 4배나 시야가 트였지요. 북서풍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기류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지역의 기온은 바람과 습도와 햇빛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바람뿐 아니라 기온까지 조절할 때에는 더 높은 차원의 권능이 필요하지요.

2016년 8월 8일, 만민하계수련회 때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수련회 장소는 24도였습니다. 9일 체육대회 때에는 27도였지요. 10월 9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7도로 예보됐지만 교회 앞마당 기온이 23.7도까지 올라 야외 행사를 하기에 적합했지요. 12월 16일 성탄 점등식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예보됐으나 영상 1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2017년 8월 수련회 때에도 25, 26도의 기온으로 조절되고, 주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나 수련회가 진행되는 전북 무주군은 제외되었지요.

기온 조절의 권능으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각 변동의 원인 중에는 땅의 온도가 과열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열을 내리면 지진 발생 위험도 자연히 줄게 될 뿐 아니라 진원지를 영의 공간으로 씩뚱으로 지반의 흔들림이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언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권능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입니다.
더 나아가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달아 닮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 기관장 교육 ‘권능’ 중에서

기압 조절의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기사는 태풍의 소멸입니다. 2008년 8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에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가장 위험한 5등급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1시경 미국의 한 성도님의 요청으로 피해 없이 지나가거나 세력이 약화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허리케인의 위쪽과 아래쪽에 A4 용지 같은 모양의 빛으로 넓게 막을 치셨습니다. 멕시코 만류는 수온이 비교적 높기에 허리케인이 이 지점에 이르면 상승기류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기 때문에 바다의 수증기를 차단 시킴으로써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스타브가 점차 힘을 잃고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요. 이처럼 때에 따라 알맞게 영의 공간을 운용하면 각종 놀라운 기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2)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신 일들, 표적(表蹟)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요 2:11, 6:2).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 14:12),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막 16:17-18).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같이 권능받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행 2:43-47).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성령의 불을 받아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았기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에는 권능받기를 사모하여 늘 기도로 살았기에 신학생 시절에도 표적이 나타났지요. 교회를 개척한 후로는 더욱 왕성하게 표적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각종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지체장애나 각종 약함의 분야가 온전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던 분들이 목발이나 휠체어를 버리고 걸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완치되기 어렵거나 아예 치료 방법이 없는 희귀병들도 치료되었습니다. 실명된 눈이 보이고 시력이 좋아졌으며, 농아들의 청력이 회복되어 듣게 되고 말도 배워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잉태하지 못하던 부부들이 잉태하고,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치료되며, 태아의 성별이 부모의 소원에 따라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3도 화상으로 신경세포까지 죽은 피부가 재생되는가 하면 아토피나 농가진으로 심하게 짓무른 피부가 깨끗이 치료된 사례도 무수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케 되었는데 앞으로는 뇌손상으로 인한 질병,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더 많이 치료될 것입니다.

2. 권능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기술이나 과학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전지전능하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능은 인생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에는 단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인 선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선과 사랑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권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 아비의 믿음(요일 2:13)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은 모든 것이 선과 사랑 가운데 행해집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일도 그 안에는 선과 사랑이 담겨 있지요.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선과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만을 원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원했고, 영혼들을 사랑하니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무수한 영혼이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에는 어떠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1) 가장 좋은 것,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는 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에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셨고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심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영혼들이 권능의 역사를 볼 때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권능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말씀을 지표삼아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권능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믿기도 쉽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준행하며 변화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아 달려가지도 않았겠지요.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들어가는 모든 일도 권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권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인 선의 마음입니다.

2)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권능이지요. 이러한 권능으로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했지요. 이렇게까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한 것은 마음 근본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끌어내린 불의 응답도 결국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우상 숭배에 젖어 사망으로 가는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고 구원해 보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수많은 권능의 역사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가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단순히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을 인생들 앞에 펼쳐 보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향한 지극한 선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깊은 선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크고 놀랍다.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과 권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 영혼들을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 사는 지산입니다.
저는 올해 15살이며, '새 사도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지붕에서 떨어져서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떤 물건도 들 수 없었으며, 웃도 엄마가 같아 입혀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무안단물을 뿌리고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기도를 받았더니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2018. 7. 17. 파키스탄에서 지산 올림



조혜림 집사 (28세, 2대대 12교구)

2017년 6월, 저는 첫아이를 갖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임신 13, 17주차인 9월과 10월에 받았던 피검사 결과, 놀랍게도 다운증후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수치가 1/270보다 크면 거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기는 무려 1/5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순간 멍하고 눈물도 났지만, 이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뒤 다음 날 재검사를 받았습니니다. 이후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함을 깨우쳤습니니다. 흠뻑도 아니니까 남편이 먼저 섬겨주길 바랐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여 집안도 잘 치워놓고 말 한마디도 선과 사랑으로 배려하고자 노력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는 물론 화요지역기도회, 구역예배, 별미기도에도 최대한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을 쌓아갔습니니다. 한편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아이의 질병은 부모의 잘못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남편(조철호 집사)과 함께 지난날을 돌아보았지요. 기도를 쉬고 말씀대로 살지 못

하고, 세상을 좇아 살았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의 확신이 생겼습니니다. 온종일 GCN방송을 켜 놓고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아이에게도 들려주었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가 나올 때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배 위에 얹고 믿음으로 받았지요. 교구장님과 교구 일꾼들, 지인들도 아기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니다.

마침내 11월 7일, 재검사 결과를 알아보니 담당자는 "정상이네요!"라고 기쁘게 말해 주셨습니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니다.

12월 17일 주일, 당회장님께 "다운증후군,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순산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2018년 3월 27일, 분만실에 들어간 저는 기도해 주신 대로 바로 순산하였습니니다. 할렐루야!

이번 일을 통해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였습니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천성 농아였으나 청력이 살아나고 안면마비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네비게스 엘비스 형제 (23세, 라트비아만민농아교회)



저는 선천성 농아로 태어나 여덟 살 때, 친척과 장난하다가 오른쪽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안면마비가 왔습니니다. 제 경우는 안면부 외상으로 인한 말초성 안면마비로 재발의 우려가 있었지요. 병원 치료로 마비증상은 사라졌지만, 열여섯 살쯤에 다시 발병하여 치료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니다.

그러던 2016년 4월, 친구로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는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은혜롭다고 하였지요. 이에 네프시스(다중화상 사이트)를 통해 수화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설교가 굉장히 명쾌하고도 파워풀했습니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불치병·난치병을 치료받고, 무엇보다 수많은 농아가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여 청력이 살아나고 좋아졌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니다.

이듬해인 2017년 8월, 저는 사모함으로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며 매우 감격스러웠지요.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전혀 안 들리던 양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귀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농아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할렐루야!

2018년 4월, 저는 당회장님의 영적인 말씀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아교회(담임 지정훈 목사)를 찾아갔습니니다. 그곳에서 말씀 공부를 하였고, 각종 예배와 기도회 등 모임에도 참석하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태국 핫야이만민농아교회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태국에 머무르던 4월 말,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이 재발한 것입니니다.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지정훈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2주 후 마비 증상이 사라지고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니다.

저는 라트비아로 돌아온 후, 그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많은 은혜를 라트비아만민농아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의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산전기형아 선별검사	
<p>초기 재검사: 2017년 09월 09일</p> <p>태 중 64.8 kg, 태중(100%) 13주 1일</p> <p>PAPP-A 14.29 mIU/mL, 3.10E MUM</p> <p>NT 2.57 mm, 1.98E MUM</p>	<p>중기 재검사: 2017년 10월 10일</p> <p>태 중 67.8 kg, 태중(100%) 13주 1일</p> <p>AFP 94.90 uIU/mL, 1.27E MUM</p> <p>HCG 85.7 uIU/mL, 2.57E MUM</p> <p>uE3 0.78 ng/mL, 0.63E MUM</p> <p>Inhibin-A 666.7 pg/mL, 3.68E MUM</p>
<p>산전검사결과</p> <p>13주 중후군: 1/10000</p> <p>18주 중후군: 1/10000</p> <p>13주 상행색채종: 1/10000</p> <p>특이표준 이상부: 1/10000</p>	<p>산전검사결과</p> <p>13주 중후군: 1/10000</p> <p>18주 중후군: 1/10000</p> <p>13주 상행색채종: 1/10000</p> <p>특이표준 이상부: 1/10000</p>

▲ 기도받기 전 :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 조각을 검사한 결과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됨.

▲ 기도받은 후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검사한 결과 '정상'으로 전환됨.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 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55)322-7055, 010-6605-2254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352-8336